

2026. 7. 6

소비재/플랫폼 Weekly

편의점의 시간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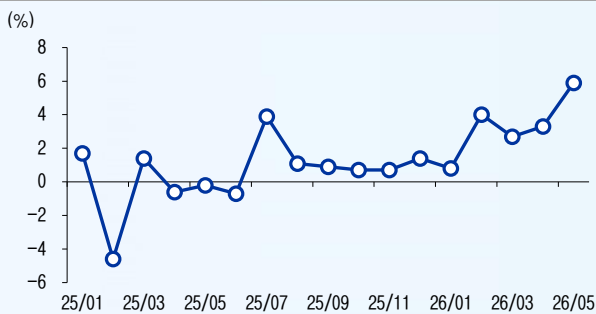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꼭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편의점 성장 돋보이는 시기: 2Q26E 기존점 신장률 1분기 대비 개선 예상
- ✓ GS리테일: 2Q26E OP 1,011억원(YoY +19.6%) 예상, 편의점 부문 실적 개선 돋보일 것
- ✓ BGF리테일: 2Q26E OP 770억원(YoY +10.9%) 예상, 고마진 카테고리 호조 고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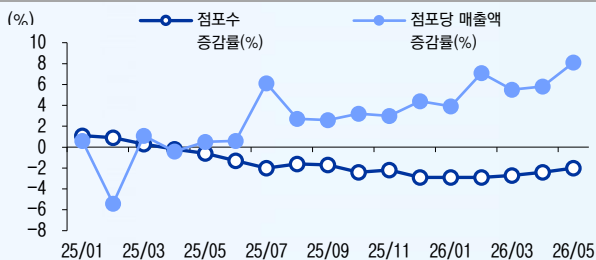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편의점 월별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점포당 매출액 증가 성장 견인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의 시간이 왔다

편의점 업황은 2분기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편의점 매출액은 4월 YoY +3.3%, 5월 +5.9%를 기록했고, 소비심리 회복과 우호적인 날씨,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가 기존점 신장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 음료, 아이스크림, 즉석식품, 디저트 등 고마진 상품군 판매가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 가격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객단가와 P 상승도 추가적인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3분기에는 휴가철과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성수기 수요가 본격화되는 만큼, 편의점 기존점 매출 회복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담뱃값 인상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편의점 업계의 추가 이익 변수. 2015년 인상 당시 판매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와 재고 차익이 동시에 발생했으며, 단기적인 판매량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판매량 감소보다 매가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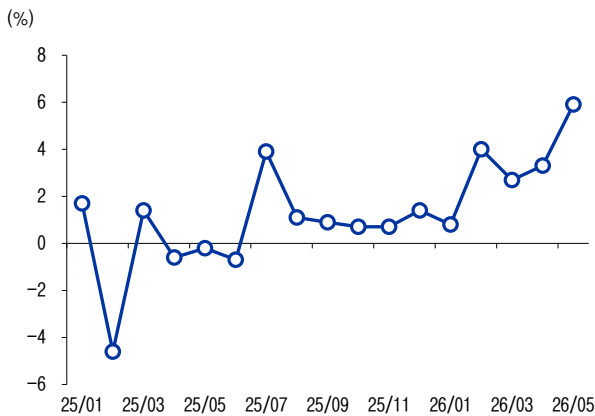
GS리테일은 2Q26E 매출액 3조 1,540억원(YoY +5.8%), 영업이익 1,011억원(YoY +19.6%)으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전망. 편의점 기존점 신장률이 mid-single 수준까지 회복되고, 인바운드 수요와 즉석식품, 디저트 중심의 상품 믹스 개선이 더해지며 편의점 영업이익은 +15.8% 증가한 683억원을 예상. BGF리테일은 2Q26E 매출액 2조 4,371억원(YoY +6.4%), 영업이익 770억원(YoY +10.9%)을 예상. 기존점 신장률은 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고마진 상품군 판매 확대가 매출과 상품 이익률 개선을 동시에 견인할 전망. 물류 파업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있겠지만, 감가상각비의 안정적 흐름, 소비심리 회복, 우호적인 날씨, 인바운드 유입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

편의점의 시간이 왔다

편의점의 시간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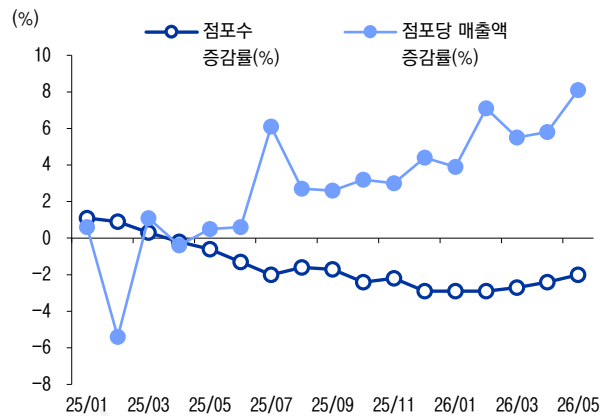
편의점의 성장이 돋보이는 시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편의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고, 5월에는 5.9% 성장하며 회복세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기존점 신장률은 1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심리 회복, 우호적인 날씨, 인바운드 관광객 소비 증가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상 환경이 양호했던 영향으로 음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고마진 상품군의 매출 성장률이 견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식품 업체들이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6월 26일부터 가격을 인상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품 가격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편의점의 객단가 상승과 P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분기에는 휴가철과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성수기 수요까지 본격화될 전망으로, 기존점 매출 개선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1 편의점 월별 매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점포당 매출액 증가 성장 견인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S증권 리서치센터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과 흡연을 하락을 위한 담뱃값 인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담뱃값이 약 80% 인상됐을 당시 편의점 업체들은 판매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대와 재고 차익이라는 두 가지 수혜를 받았다. 당시 편의점 업계 총 점포수는 28,994개였으나 2025년말 기준 53,266개까지 약 1.8배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보다 더 넓어진 점포망을 기반으로 업계 전반의 이익 증가 효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2015년 인상 직후 첫 1개월 동안 담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며 수요 위축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이후 판매량 감소폭은 빠르게 축소됐고, 연간 전체 담배 판매량도 35~36억갑 수준에서 유지됐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판매량 감소보다 매가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GS리테일: 2Q26E OP 1,011억원(YoY +19.6%) 예상

GS리테일의 2Q26E 매출액은 YoY 5.8% 증가한 3조 1,540억원, 영업이익은 YoY 19.6% 증가한 1,011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편의점 기존점 신장률은 mid-single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은 YoY 15.8% 개선된 683억원 수준을 추정한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입 확대와 성수기 수요가 더해지면서 객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며, 상품 믹스 측면에서도 즉석 식품, 디저트 등의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 슈퍼마켓 부문 역시 기존점 신장률이 mid-single 수준으로 개선되며 실적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비효율 점포 조정과 상품 운영 효율화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은 취급고 성장보다 수익성 중심의 운영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고마진 카테고리 중심으로 편성 전략을 강화하면서 2Q26E 홈쇼핑 영업이익은 YoY 9.0% 개선된 275억원 수준을 추정한다. 전반적으로 2분기는 편의점과 슈퍼의 기존점 회복, 홈쇼핑의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GS리테일 전사 실적의 개선 폭을 확대시키는 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표1 GS 리테일 분기/연간 실적 추정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추정 실적											
매출액	27,498	29,806	32,054	30,260	28,549	31,540	33,620	31,135	119,618	124,844	129,506
CVS	20,123	22,257	24,485	22,531	20,863	23,550	25,655	23,113	89,396	93,181	97,265
Supermarket	4,160	4,267	4,594	4,404	4,534	4,702	4,863	4,658	17,425	18,757	19,230
홈쇼핑	2,578	2,658	2,475	2,780	2,620	2,688	2,592	2,864	10,491	10,764	11,261
영업이익	418	845	1,111	532	583	1,011	1,203	687	2,921	3,483	3,778
CVS	172	590	851	248	213	683	924	324	1,861	2,143	2,539
Supermarket	78	54	92	47	121	103	146	56	271	426	365
홈쇼핑	224	252	116	337	297	275	183	349	929	1,103	930
영업이익률	1.5%	2.8%	3.5%	1.8%	2.0%	3.2%	3.6%	2.2%	2.4%	2.8%	2.9%
CVS	0.9%	2.7%	3.5%	1.1%	1.0%	2.9%	3.6%	1.4%	2.1%	2.3%	2.6%
Supermarket	1.9%	1.3%	2.0%	1.1%	2.7%	2.2%	3.0%	1.2%	1.6%	2.3%	1.9%
홈쇼핑	2.3%	2.6%	1.3%	3.5%	3.3%	3.0%	2.0%	3.5%	2.5%	3.0%	2.4%
매출액 성장률	1.8%	1.7%	5.3%	3.5%	3.8%	5.8%	4.9%	2.9%	3.1%	4.4%	3.7%
영업이익 성장률	-15.9%	4.3%	31.5%	92.1%	39.5%	19.6%	8.2%	29.1%	14.1%	19.3%	8.4%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BGF리테일: 2Q26E OP 770억원(YoY +10.9%) 예상

BGF리테일의 2Q26E 매출액은 YoY 6.4% 증가한 2조 4,371억원, 영업이익은 YoY 10.9% 증가한 77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기존점 신장률은 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심리 개선과 우호적인 기상 환경을 바탕으로 음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상품군의 판매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상품 이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가상각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 파업 영향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에도 2분기에는 날씨와 소비심리라는 외부 변수들이 편의점 수요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인바운드 소비 확대도 추가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25년 4분기 기준 1.4~1.5%로 과거 1% 미만 대비 의미 있게 상승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2% 이상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관광지외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 매출 기여를 넘어 객수 증가와 상품 믹스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3분기에는 휴가철과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성수기 수요가 본격화되는 만큼, 기존점 성장과 수익성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2 BGF 리테일 분기/연간 실적 추정

(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추정 실적											
매출액	20,165	22,901	24,623	22,923	21,204	24,371	25,121	23,711	90,612	94,406	98,075
편의점	19,753	22,383	24,058	22,387	20,698	23,775	24,471	23,094	88,581	92,038	95,291
기타 및 연결 조정	412	518	565	536	506	596	650	616	2,031	2,031	2,784
영업이익	226	694	977	642	381	770	1,037	702	2,539	2,889	3,064
편의점	232	602	835	551	311	680	896	632	2,220	2,518	2,830
기타 및 연결 조정	-6	92	142	91	70	90	141	70	319	371	234
영업이익률	1.1%	3.0%	4.0%	2.8%	1.8%	3.2%	4.1%	3.0%	2.8%	3.1%	3.1%
편의점 영업이익률	1.2%	2.7%	3.5%	2.5%	1.5%	2.9%	3.7%	2.7%	2.5%	2.7%	3.0%
성장률											
연결 매출액	3.2%	4.0%	5.9%	3.4%	5.2%	6.4%	2.0%	3.4%	4.2%	4.2%	3.9%
편의점	1.3%	2.9%	5.0%	2.8%	4.8%	6.2%	1.7%	3.2%	3.1%	3.9%	3.5%
영업이익	-30.7%	-8.9%	7.1%	24.4%	68.4%	10.9%	6.2%	9.2%	0.9%	13.8%	6.0%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표3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8,088	66,170,111	-3.8	-8.1	50.4	87.7	159.6	91.9	-	-	-	-	-	-	
코스피 대형주	8,955	61,660,720	-4.5	-8.2	57.2	99.2	188.0	104.6	-	-	-	-	-	-	
코스닥	868	4,876,907	2.0	-15.4	-18.4	-8.2	9.5	-6.2	-	-	-	-	-	-	
코스피 중형주	4,182	3,595,291	5.6	-7.3	-1.6	13.2	21.0	12.3	-	-	-	-	-	-	
코스피 소형주	2,320	877,270	5.8	-6.3	-14.4	-8.0	-8.6	-7.9	-	-	-	-	-	-	
유통															
코웨이	95,400	67,512	11.3	0.9	32.5	11.6	-3.7	9.8	11.2	9.6	8.4	1.9	1.6	1.4	
호텔신라	50,900	19,977	10.8	-2.3	18.1	11.8	-1.0	14.1	-14.1	20.7	14.8	1.7	1.6	1.4	
BGF 리테일	124,300	21,484	7.4	-6.2	-7.2	19.3	-1.7	18.6	11.5	9.6	8.7	1.7	1.5	1.3	
GS 리테일	25,000	20,902	16.6	-1.0	16.6	26.5	44.0	24.4	14.1	10.3	9.1	0.6	0.6	0.6	
롯데쇼핑	167,300	47,327	-4.2	8.6	68.1	143.9	116.7	130.8	60.3	12.6	10.9	0.3	0.3	0.3	
신세계	706,000	66,683	-4.6	24.1	131.5	205.6	268.7	185.8	65.8	17.8	15.5	1.4	1.3	1.2	
이마트	83,500	23,043	5.0	-5.5	-7.4	4.1	-10.9	2.7	7.1	13.5	8.2	0.2	0.2	0.2	
현대백화점	179,400	38,687	-10.5	47.3	137.6	111.3	130.6	102.5	17.8	14.1	11.0	0.9	0.8	0.8	
SK 네트워크스	9,500	19,056	-2.2	-26.0	82.0	114.0	103.9	110.2	39.2	24.1	27.0	0.9	0.9	0.9	
인터넷															
NAVER	195,800	307,186	-0.3	-30.2	-0.9	-20.7	-22.6	-19.3	14.3	16.1	13.4	1.1	1.0	0.9	
카카오	35,500	157,253	7.1	-16.6	-21.5	-42.8	-40.3	-40.9	29.3	22.9	19.2	1.5	1.3	1.2	
게임															
크래프톤	235,500	108,655	15.4	-6.6	-3.3	-5.0	-35.6	-4.3	12.7	9.9	8.8	1.4	1.3	1.1	
넷마블	38,200	31,299	8.7	-14.9	-23.6	-22.9	-38.5	-20.8	10.4	8.4	9.1	0.6	0.6	0.5	
NC	261,000	56,230	9.7	-22.8	23.4	20.6	27.0	29.5	15.6	12.2	11.3	1.5	1.3	1.2	
펄어비스	36,300	22,812	6.3	-15.4	-42.6	-8.8	-13.4	-2.9	-261.6	6.3	15.0	2.8	1.9	1.7	
카카오게임즈	7,850	8,419	13.3	-19.2	-33.4	-49.0	-57.5	-47.3	-5.2	-7.2	-108.6	0.6	0.8	0.8	
더블유게임즈	65,200	13,805	8.7	-6.7	32.3	19.6	12.8	21.6	9.4	7.1	6.1	1.0	0.9	0.8	
NHN	35,650	11,676	10.4	-33.1	-1.9	15.6	22.7	22.7	33.0	10.7	8.8	0.7	0.7	0.6	
웹젠	11,570	3,583	2.1	9.5	-4.1	-10.9	-20.8	-10.3	14.0	10.7	8.6	0.5	0.5	0.4	
컴투스	26,150	3,162	15.2	-1.9	-21.7	-12.7	-35.7	-10.0	66.3	11.7	7.0	0.3	0.3	0.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21,200	70,893	25.0	10.9	-7.8	-4.5	-11.9	1.4	31.2	23.8	20.8	1.5	1.5	1.4	
LG 생활건강	245,000	36,690	14.0	0.4	-0.8	-9.3	-25.1	-5.2	33.9	22.1	17.3	0.7	0.7	0.7	
실리콘투	36,100	23,673	18.8	1.7	-8.1	-10.5	-31.8	-6.6	13.0	10.8	8.6	5.3	3.6	2.6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4,000	18,350	17.4	9.3	-11.9	-17.2	-25.7	-10.6	14.7	0.0	0.0	0.6	0.0	0.0	
한국콜마	117,800	27,807	29.9	41.3	54.8	80.1	17.9	89.7	26.9	16.2	13.7	3.2	2.6	2.2	
코스맥스	168,300	19,101	16.2	-1.0	-11.1	-5.5	-36.4	3.3	33.1	13.0	10.8	3.8	2.9	2.4	
브이티	11,880	4,151	10.8	-6.8	-20.6	-35.6	-66.4	-32.2	7.0	8.0	6.4	0.0	1.4	1.1	
코스메카코리아	82,200	8,779	24.4	17.3	7.2	17.4	40.3	23.4	17.9	12.6	11.2	3.4	2.8	2.2	
씨앤씨인터내셔널	19,980	2,723	-3.0	3.6	-22.4	-39.3	-42.9	-32.6	12.1	14.9	13.4	1.3	0.0	0.0	
클리오	10,140	1,832	12.2	-6.5	-13.0	-27.1	-37.5	-22.2	13.3	8.8	8.3	0.0	0.7	0.6	
한국화장품제조	8,520	1,931	16.9	3.8	-1.8	-17.8	-23.7	-12.9	0.0	0.0	0.0	0.0	0.0	0.0	
아이패밀리에스씨	8,360	1,395	16.1	-15.2	-24.1	-44.2	-53.4	-38.8	6.0	5.8	4.8	1.3	0.0	0.0	
마녀공장	15,430	2,529	14.6	17.3	27.3	-2.0	-18.4	12.7	0.0	0.0	0.0	0.0	0.0	0.0	

자료: Quant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7.3 종가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리아).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7%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